

동 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점점 나를 피하는 게 느껴졌다. 왜 그럴까? 라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도중,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본 관태기 라는 신조어가 떠올랐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학생들도 경험하는지 궁금해서 조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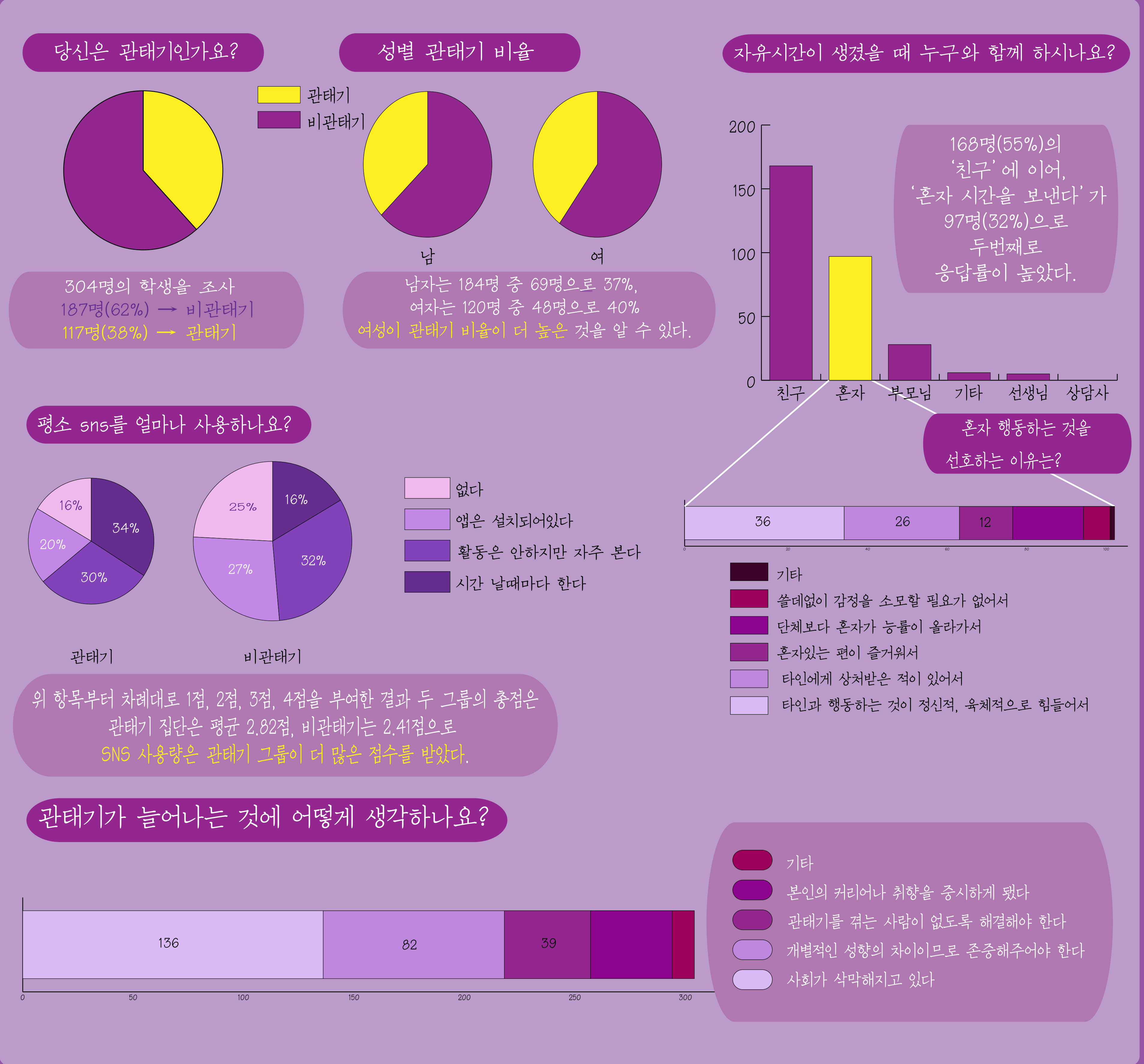
조사방법

- * 온라인 설문 조사
전주 지역의 고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네이버 폼)를 실시하였다.
- * 현장조사
설문지를 인쇄하여 관태기에 대해 설명한 뒤, 진안 지역의 중,고등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설

1. 학생들 사이에서 관태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2. 관태기인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3. 관태기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교적 SNS 사용량이 적을 것이다.
4. 관태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정적일 것이다.

‘관태기’ 를 아시나요?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로, ‘**관계의 권태기**’ 를 뜻하는 단어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회의적인 상태’ 를 뜻하는 신조어다.



느낀점

온라인 설문과 현장 조사를 통해 관태기 현상을 실감하였고, 시대가 변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필요해지는 것을 보고,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워진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 계

- 통계 자료를 제작하며 만족스러운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 모집단인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표본집단을 한정지어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
 2. 두 그룹의 SNS 사용량을 수치화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
 3. 외부의 영향을 오직 타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인 영향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작한 점이다.
- 사람들의 관계형성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분석하고, 많은 변인의 영향을 알아본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통계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 및 캠페인 활동

학생들이 관계 형성을 무조건 하려는 추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관태기가 사회가 삭막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아 관태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관태기를 겪고 있는 동시에, 관태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관태기에 대해 알리고 관태기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